

왜 내년 7월 U대회에 맞춰 문화전당 개관이 안되는 지 아세요? 광주에는 대형 이벤트 2개를 감당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

차이나 프렌들리요? 공들여서 중국인 관광객 모셔오면 뭐합니다. 광주에는 제대로 먹고 잘 곳이 없는데.

광주의 한 여행업체 대표

대규모 의료화회를 하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열악해서 포기합니다. 소비력이 높은 의사 수천명이 오면 쓰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광주 모 대학병원 관계자

관광객들이 광주에서 숙박을 해야 밤 시간에 술도 한잔하고, 쇼핑도 할 것 아닙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공무원

잠 잘 곳 없어 스쳐가는 '광주 관광'

특급호텔 부족·만족도 낮아
중국인 등 단체 관광객들
숙박·식사 인프라 확충 시급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차이나 프렌들리(중국과 친해지기) 정책과 대규모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주로 몰려들고 있지만, 부족하고 낙후한 숙박시설이 걸림돌이 돼 '찾아오는 관광객'마저 타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여저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내년 3월 KTX호남선 개통과 9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될 경우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하루평균 1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시설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자칫 KTX 개통 효과마저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잠잘 곳을 찾지 못해 KTX로 1시간33분이던 갈 수 있는 서울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관광업계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숙박 대란을 예상하고, 광주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를 방문한 내국인은 211만명이며, 외국인인 15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중 중국인은 40%에 육박하는 6만여명 정도다. 비수기 등을 따지지 않더라도 하루 평균 6200여명이 광주를 찾고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모두 21개의 국제행사가 열리는 올해에는 행사 관련 방문객 수만 1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3만9000여명은 외국인이다.

특히 '차이나 프렌들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인 민선 6기가 들어선 올 6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는 추세다. 오는 11월부터는 매일 무안공항에서 중국을 오고 가는 180좌석 규모의 전세기기 취항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전세기를 이용해 최소 3만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광주



중국 국경절 연휴(1~7일)가 시작된 1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이 출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관광호텔 현황(14. 8. 31 현재)

등급	호텔명	객실수
1등급 이상		
특1등급	라마다프라자 홀리데이인	120
	신양파크 프라도	205
특2등급	무등파크 파레스	87
	센트럴 피렌체	111
1등급	예술의전당	110
		30
		45
		59
		61

와 전남에서 1박씩을 머물며 관광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년의 두 배 수준인 12만명의 중국인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여행업체들은 중국 관광객의 방문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이다. 이들이 몰려오더라도 당장 재우고 먹일 숙박업소와 식당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국제행사와 겹치게 되면 전

남이나 전북 군산 등 타지역에서 원정숙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광은 광주에서 하고, 돈은 타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 숙박시설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채우지 못하고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사례도 많아 중국 관광객의 불만이 높다는 게 여행업계의 하소연이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단체 인원을 적절한 가격에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중국인은 좌식을 꺼려하지만 의자 등을 갖춘 대형식당을 찾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 세월호 여파 등으로 중·고교의 수학여행단까지 광주(기아차 공장~5·18 유적지 탐방 등)로 몰려오고 있지만, 숙식은 인근 화순이나 담양 등에서 해결하고 있다.

KTX개통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내년이면 숙박시설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화전당 개관 효과로 연 250만명, 하루 평균 700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의 1등급 이상 호텔은 18개로 객실수도 1234실에 불과하다. 시설이 낡은 모텔급까지 합해도 2000실이 채 안 된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라마다프라자 호텔과 홀리데이인 등은 수도권이나 제주도 호텔 등에 비해 시설면에서 특1급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으로, VIP급 손님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선 낙후 숙박시설을 아트호텔 등 특색있게 리모델링하고, 준호텔급, 가족형 호텔 콘도 등의 유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광신대학교



1일 오후 나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닷 올렸다

빛가람 혁신도시서 출범식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1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4개 상생발전 방안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문화관 운영,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 등 광주·전남 일원에 신재생에너지단지인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서울에 '제2의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광주·전남 발전연구위원회 통합도 추진한다.

상생발전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만나

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이날 "전남과 상생은 물론 광주와 인접한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에 기반한 협력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라북도까지도 앞으로는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당당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도 "상생은 개인적인 양명이 나 업무 성과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시·도민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출범식에 불참한 시·도의회 의장을 의식한 듯 "시·도의회 높은 지혜를 빌려 상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로 예정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까지 참석하는 호남권 광역단체장 회의와 관련 윤 시장과 이 지사는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6년만에 만나고 호남권정책협의회가 8년 만에 재가동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호남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공동운명체이며, 역점사업을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소희·이아름·조철호 '금빛 받차기'

한국의 '금빛 받차기'가 시작됐다. 김소희(20)가 1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46kg급 결승에서 린완딩(대만)을 10-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희의 태권도 첫 메달을 시작으로 이아름(22)과 조철호(23)의 금빛 행진이 이어졌다.

이아름은 여자 47kg급 결승에서 일본의 하마다 마유를 6-4, 조철호는 남자 87kg 초과급 결승에서 올해 아시안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드미트리 쇼킨(우즈베키스탄)을 7-6으로 꺾고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관련기사 18·20면〉

여수시청의 채봉진(31)은 박건우(33), 조성민(27), 김성욱(30), 양호엽(23)과 요트 매트리이스 사상 첫 은메달을 함했다.

전날에는 여수 출신 김창주(29)가 요트 남자 470급에서 금을 따는 등 한국 요트는 금4, 은1, 동1로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HERA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매체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